

판수누적(版數累積) 교과서 도입의 발행에 관한 연구*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



민부자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정희엽
고려대학교 석사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각 교과목에 대해 그 발행제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서책과 디지털도서 등을 새로 개발한다. 이러한 교과서를 전면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전면 개편 교과서'라고 칭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판수 누적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화된 출판사들이 학교 교과서를 초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판, 5판, 10판 등으로 꾸준히 수정 보완하여 판수를 거듭해 보다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서책 교과서를 의미한다.

* 본 연구는 한국교육학연구 제28권 제1호에 게재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판수 누적 교과서’ 제도가 요구되는 이유는 크게 오류 없는 교과서에 대한 기대, 보다 질 높은 교과서의 개발 요구, 출판사를 비롯한 교과서 공급자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전면 폐기에 따른 예산 낭비의 극복, 한국사 교과서처럼 견해차가 많을 때 공인받은 교과서의 확보, 교과서 발행제도의 안정성 유지, 부모와 자녀 대를 잇는 안정적 교육 내용의 확보, 디지털 교과서의 부상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판수 누적 교과서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교과서의 질 관리 때문이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를 개발하는 경우 교과서가 처음 인쇄되어 나오면 초판이기도 하지만 교과서를 만드는 데 시간에 쫓기기도 하며, 실상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는 인원 등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한 번에 다수를 출원하는 발행사의 경우 전문성은 높지만, 물량 자체가 많아서 일일이 오류를 확인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따라서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서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Textbook Information One-stop Service(약칭 TIOS)’를 두고 교과서에 드러난 여러 가지 오류나 변경 사항을 교사,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을 위한 의견 수렴 통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과서의 오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더 나은 교과서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경화, 김은지(2021)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의 질 관리 연구에서 2015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의 수정·보완 요구 수를 조사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초등 국어 1학년 1학기 교과서의 경우 2017년 수정·보완 요구 수는 106개인데 비해 2019년에는 1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다른 교과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교과서의 판수를 누적할수록 더 질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역사부도나 역사 교과서 등은 정확성과 사실적 객관성을 요구하므로 판수를 누적해 감으로써 그 오류를 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서책 교과서 발행제도가 현재의 국정·검정·인정에서 장차 심사형과 자율형으로 단순화되어 발행사의 전문성과 장기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 속에서도 공통필수 교과목 명칭과 내용의 안정적 유지와 초·중·등학교 지식의 안정적인 측면에 비추어 신편, 초판 교과서만 개발하여 사용하다 폐기하는 낭비적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교과서 사용의 유효기간이 짧은 가운데 오류 많은 초판만 발행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판수 누적 교과서’ 제도를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2. 이론적 탐색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서 발행제는 국정, 검정, 인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교육과정 개정기마다, 또는 정권의 요구에 따라 교과목별 교과서 발행제가 달라진다. 또, 앞으로 2025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유발행제를 도입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안종욱 외(2020) 및 최근 교과서 제도 재구조화 연구에서는 교과용도서 발행제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기존의 국정, 검정, 인정 교과용도서 발행제도를 심사가 있는 발행제도와 심사가 없는 자유발행제로 구분하는 것이다. 심사가 있는 발행제의 경우 국가에서 그 질 관리를 하고, 자유발행제의 경우 출판사나 집필자가 교과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교과서 발행제에 적합한 새로운 교과서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 방안으로 ‘판수 누적 교과서’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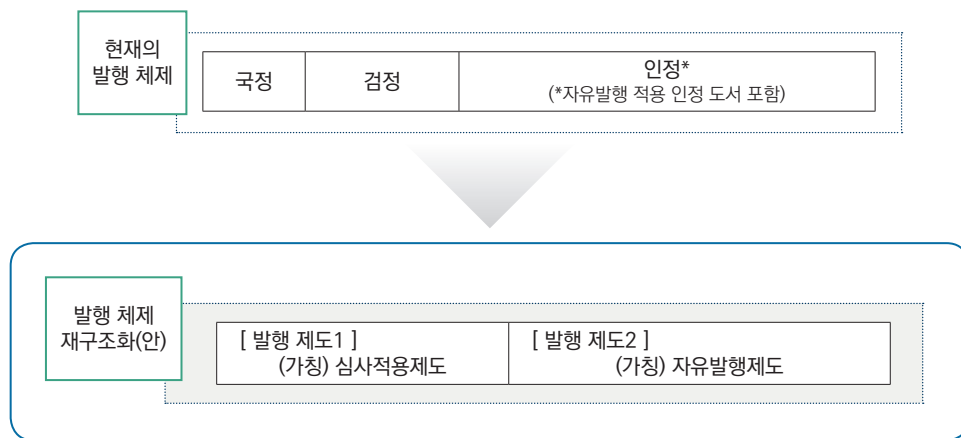


그림 1 — 교과용 도서 발행 체제 재구조화(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다는 기독교 성경의 경우 히브리어나 희랍어에 대한 이해가 더 정확해질수록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 높아져 판수를 거듭하게 된다. 해외의 경우 정평 있는 대학의 유명 교수가 집필한 교재 등은 판수를 거듭한다. 가령 사무엘슨의 경제학은 1948년부터 2000년대까지 판수를 거듭하였고, 이를 이은 하버드대학 맨큐 교수의 경제학 서적은 9판째 수정 보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엄정한 정답을 요구하는 고시 시험용 서적들은 판수를 거듭해 왔다. 김철수 교수의 헌법, 이기백 교수의 한국사

신론은 판수를 거듭했으며, 홍성대의 수학의 정석은 1966년부터 오늘날까지 판수를 거듭하고 있다. 한편, 연구진들은 다른 나라의 교과서 판수 누적 사례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표 1 — 다른 나라의 판수 누적 교과서 발행 사례

국가	교과	교과서명	판수
영국	Geomatics	Philip's RGS Modern School Atlas	100th Edition
미국	Physical education	Dynamic Physical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19th Edition
미국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 in Elementary Education	15th Edition
미국	Geomatics	Elementary Surveying: An Introduction to Geomatics	15th Edition
독일	History	A History of Modern Germany: 1871 to Present	8th Edition
독일	German	Treffpunkt : Deutsch	7th Edition
영국	Math	Complete Mathematics for Cambridge IGCSE® Student Book (Core)	5th Edition
독일	History	A History of Germany 1918 – 2020: The Divided Nation	5th Edition
미국	Mathematic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Mathematics: Teaching Developmentally	5th Edition
미국	History	Created Equal: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5th Edition
영국	English	A Book of Middle English	4th Edition
독일	Grammar	New Headway Elementary Fourth Edition	4th Edition
호주	Math	Advanced Primary Maths	4th Edition
미국	Grammar	Essential Grammar in Use with Answers	4th Edition
미국	Physics	Focus on Elementary Physics Student Textbook	3rd Edition
미국	Politics	Introduction to Global Politics	3rd Edition
프랑스	Science	SVT	3rd Edition
호주	History	AQA GCSE Modern World History	3rd Edition
영국	Art	Art in the Primary School	2nd Edition
프랑스	French	FRANÇAIS MÉTHODES ET PRATIQUES	2nd Edition
호주	History	Kay Features of Modern History	2nd Edition
호주	Math	Essential Standard General Mathematics	2nd Edition
호주	Science	Core Science 4: Stage 5	2nd Edition

다른 나라의 교과서 판수 누적 사례를 살펴보면 적게는 2판에서부터 많게는 영국 지리부도의 경우 100판까지 판수를 거듭하여 교과서를 발행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장차 우리나라에서 교과서 발행제가 새롭게 재구조화되어 출판사나 집필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좋은 품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교육과정 개정기에 초판만 만들어 짧은 기간 활용하다 폐기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판수 누적 교과서 사례처럼 책무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과서를 개선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외국 사례를 조사하는 것에 더하여 판수 누적 서책 교과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 집단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조사는 초·중·고·대학교 교원, 사교육기관 교원, 교과서 개발자 및 집필자, 출판사의 발행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웹 설문으로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두 집단 간의 의견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의견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집단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2 — 응답자 배경 변인

[단위: 명(%)]

성별	남	여	합계
	63(31.5)	137(68.5)	200(100.0)
교과서와의 관련성	사용자 (교사, 독자 등)	공급자 (저자, 심의자, 발행사 등)	합계
	125(62.5)	75(37.5)	200(100.0)

의견조사 문항은 크게 I 영역의 '판수 누적 교과서의 장점과 기대 효과(18개 문항)', II 영역의 '판수 누적 교과서의 단점 및 문제점(10문항)'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하는 5단계의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고, 결과 처리는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교과서 사용자와 교과서 공급자 간의 응답 결과에 대한 평균값 차이의 유의미성을 t검증하였다.

4. 연구 결과

가. 판수 누적 교과서 제도 도입의 장점과 기대 효과

1) 질 높은 교과서 개발 가능성

질 높은 교과서 개발과 관련하여 첫째, ‘교과서 초판의 오타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44, 동의율 91.2%,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4.37, 동의율 90.7%로 나타났다.

둘째, ‘교과서 초판의 내용상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41, 동의율 92.8%, 공급자 집단의 평균도 4.41, 동의율 92.0%로 교과서 사용자와 공급자의 두 집단 모두 교과서의 판수 누적으로 내용상의 오류나 오타자 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셋째, ‘각 분야에 정평이 난 교과서가 탄생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04, 동의율 75.2%,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72, 동의율 62.7%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사용자 집단이 판수 누적으로 인한 분야별 우수 교과서 개발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았다.

넷째, ‘교과별 핵심적인 내용이 선정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04, 동의율 80%,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38, 동의율 68%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판수 누적으로 교육 내용에 맞는 최적의 교육 방법, 교육평가 방안을 찾기에 유리하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04, 동의율 74.4%,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38, 동의율 36%로 두 집단 간 의견 차이가 크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교과서 사용자, 공급자의 역할 차이로 보이며 교과서 사용자의 경우 교육 내용이 결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제일 적합한 교육 방법과 교육평가를 고민하므로 교육 내용을 담는 교과서가 판수 누적을 통해 탄탄하게 다져지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지리부도나 역사부도는 판수 누적을 적용하면 오류가 줄어들고 품질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40, 동의율 91.2%,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4.24, 동의율 88%로 나타났다.

일곱째, ‘한국사를 비롯한 역사 교과서는 판수 누적을 적용하면 오류가 줄어들고 합

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13, 동의율 81.6%이고,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57, 동의율 57.4%로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당대사가 아니라면 교과서의 판수 누적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역사적 사실을 다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잦은 교육과정 개정의 단점 극복 가능성

교육과정 개정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첫째, ‘교육과정 전면 개정 시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를 전면 개편하여 초판으로 공부하는 현재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04, 동의율 72.8%,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37, 동의율 42.7%로 사용자 집단의 동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교과서 사용자 집단의 경우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교과서가 전면 개편된 초판을 실제 사용해 보는 과정에서 초판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오류들이나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변경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상의 불편함을 겪은 바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라 교과서 판수 누적을 통해 기본 교과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20, 동의율 87.2%로 호응이 높은 반면,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80, 동의율 65.3%로 판수 누적 교과서 개발이 기본 교과목 안정화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교과서 공급자 집단이 사용자 집단보다 약간 낮게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3) 출판사의 교과서에 대한 책무성 강화

출판사의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첫째 ‘저자, 출판사의 교과서 질 관리의 책무성이 강화된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26, 동의율 84.8%,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93, 동의율 70.7%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교과별 전문 출판사가 형성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11, 동의율 80.8%,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65, 동의율 64%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저작권을 출판사가 가질 경우 출판의 연속성이 더 잘 확보되어 판수 누적형 개선이 수월하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과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96으로 동일하

나, 동의율은 사용자 집단이 78.4%, 공급자 집단이 70.7%로 사용자 집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서책 교과서 개발 비용 절감과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의 투자 여력 확보

교과서 개발 비용 절감과 관련하여 첫째, ‘교과서 개발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아낄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35, 동의율 84.8%,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4.16, 동의율 78.7%를 보였다. 이는 교육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어지며, 또한 연쇄적으로 출판사의 수익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서책 제작에 여력이 생겨 디지털화가 용이해진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18, 동의율 81.6%,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73, 동의율 65.3%이고,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종합해 보면 판수 누적 교과서의 장점 및 기대 효과와 관련하여 첫째, 교과서 사용자와 공급자는 내용상의 오류를 줄이고 오타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지리부도나 역사부도의 품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으나, 각 분야에 정평이 난 질 높은 교과서의 개발과 역사 교과서 내용의 합의 가능성에서는 전체적으로 동의는 가운데서도 공급자 집단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과정의 연계 측면으로 교육과정 개정 시 모든 교과목의 교과서를 초판으로 발행하는 것의 문제점, 기본 교과목의 안정화, 교육 내용에 알맞은 최적의 교육 방법과 교육평가 방안 탐색 가능성 등에 대해 두 집단 모두 일정 정도의 동의율을 보였으나, 공급자 집단의 동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출판사와 관련하여 저자와 출판사의 질 관리 책무성 강화에서는 두 집단 모두 평균이 높은 편이었으나, 교과별 전문 출판사 형성에서는 공급자 집단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교과서 판수 누적으로 개발 비용 및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데 두 집단 모두 동의하였으나, 그로 인한 교과서의 디지털화 투자 여력 확보에 대해서는 집단 간 의견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교과서 사용자 집단의 경우 판수 누적 교과서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공급자 집단의 경우 평균이나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기존의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보면 판수가 누적되면 교과서 출판사들의 상시 고용 인력은 줄어들 수 있어 응답자들의 직업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수 누적 교과서 제도 도입의 문제와 과제

1)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선택의 괴리 가능성

판수 누적이 거듭되면 개정 교육과정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첫째, ‘교육과정 전면 개정 시 교과서가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의 평균은 3.56, 동의율 60.8%, 공급자의 평균은 3.65, 동의율 68%이며,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과서의 전면 개편 등 획기적 변화가 어려워진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3.52, 동의율 57.6%,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98, 동의율 73.4%로, 교과서 공급자 집단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교과서 내용이 보수화될 수 있고, 최신 내용의 제때 반영이 쉽지 않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3.48, 동의율 56%이고,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77, 동의율 62.7%로, 교과서 공급자 집단이 최신 내용 반영의 어려움에 대해 조금 더 공감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2) 소수 출판사의 교과서 시장 독과점화 가능성

판수 누적형 교과서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 소수 출판사의 독과점화가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특정 교과서에 특정 출판사의 독과점이 심해진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4.02, 동의율 76%,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77, 동의율 68%로, 두 집단 모두 일부 출판사의 독과점화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후발 출판사들이 시장에 새로 진입할 여지가 적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3.92, 동의율 72.8%,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89, 동의율 70.6%로 이 또한 유사하게 두 집단 모두 후발 출판사들의 시장 진입 어려움을 전망하였다.

셋째, ‘출판사와 저작자 사이에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사용자 집단의 평균은 3.54, 동의율 54.4%, 공급자 집단의 평균은 3.28, 동의율 44%로, 특히 교과서 공급자 집단이 이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판수 누적 교과서의 문제 및 과제와 관련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첫째, 개정 교육과정과의 괴리에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시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항, 최신 내용의 반영이 어렵다는 문항에 대해 교과서 사용자와 공급자 모두 4점 만점에 3.5점 전후로 평가하여

실상 큰 문제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교과서의 획기적 변화가 어려워진다는 문항에 대해 공급자 집단의 동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정 출판사의 독과점화에 대해서는 독과점이 심해진다는 문항, 후발 출판사의 시장 진입 어려움 등에 대해 두 집단 모두 동의 정도가 높고 집단 간 의견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출판사와 저자 간 저작권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자 집단의 동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 교과서 판수 누적에 따른 심각한 고려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학생과 교사에게 ‘보다 이상적인 교과서’를 제공하여 더 나은 교과서로 공부하게 해야 하는데, 교과서는 달라지는 것보다 가치 지향적으로 좋아져야 할 필요가 높다. 인간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잠정적이며, 가변적인 데다 현대 과학기술과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식의 사회적 존재 구속성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내용이 잠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인간은 이상적인 지식, 불변하는 절대적 지식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상적인 교과서’를 갖는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비관적이다. 그렇지만 이전의 인류가 가진 지식이나 교육 내용에 비해 정오(正誤), 진위(眞僞), 시비(是非)에서 더 합리적인, 공인된 지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서의 판수 누적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과서 대부분의 단원과 장이 안정성을 갖고 수단적·방법론적 측면에서 미시적 개선을 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 일부 단원이나 장을 수정 보완하거나 추가 신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처럼 ‘역량’이 강조되면 교과서도 역량을 강조하여 신편 제작되기에, 더 나아졌다기보다 더 달라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달라진다는 것은 좋아지는 것이다.’는 것으로 귀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판수 누적형 서책 교과서 연구의 핵심 희망 사항이다.


둘째, 판수 누적 교과서 발행 제도가 갖는 문제점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러므로 모든 학교급, 모든 교과서보다 정확성이나 역사성이 요구되는 부도나 역사, 한문, 국어, 수학 등의 교과서에 먼저 시범 적용해 보고 차츰 다른 분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오늘날 과학기술은 가상세계를 무한히 확대 연결해 가고 있는데, 학교 교육에도 예외가 없으며, 따라서 교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교재가 요구된다. 그

중 전자교재는 문자나 그림, 소리, 영상 등이 결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서,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CD-ROM 등을 모두 포함하며, 나아가 디지털 교과서가 적극 개발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그 속도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외국의 사례도 비슷한데, 디지털교과서의 세계적인 경향을 보면, 많은 나라에서 서책형 교과서의 보완 혹은 대체로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서책형 교과서 개발에 대한 교육 예산의 절감과 함께 학생들에게 익숙한 디지털 매체의 장점을 활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 클라우드형 교과서, 동영상형 교과서, 유튜브형 교과서 등 교과서 내용을 실어 나르는 수단(미디어)은 매우 다양해지는 상황인데, 이에 대비하여 현재의 교과서 제도 중 서책형 교과서의 비중은 줄이고 온라인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비중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의 하나로 판수 누적 교과서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에 따라 향후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판수 누적 교과서 개발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실제에 적용하기 위해 판수 누적 교과서가 보다 적절한 학교급이나 학년군, 교과목은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일부 교과서에 한해 판수 누적을 시범 도입하고 그 효과를 진단하여 차츰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 기준의 전면 개정에 따라 교과서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므로, 이런 관행과 판수 누적이 얼마나 상응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상 초·중학교의 경우 공통필수 교육과정기이므로 기본적인 교육 내용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어도 교과서 내용이 일시에 모두 달라질 필요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의 제한 등으로 다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교과서 공급자들은 판수 누적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나 수요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보적이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이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깊이 있게 밝힐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안종욱, 이용백, 김덕근, 김광규, 임윤진, 정연준, 차경미(2020). 교과용도서 발행 체제의 재구조화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T 2020-1.
- 이경화, 김은지(2021). 초등 국어 교과서 질 제고 방안-교과서 사용 단계를 중심으로-. 교과서연구, 제 104호, 48-66.
- 홍후조(2000).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한국검정교과서협회 연수자료.
- 홍후조, 강익수, 김성근, 백경선, 이종현, 황익중(2004). 교육과정 교과서 체제 개편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 홍후조, 조호제, 하화주, 민부자, 김대영, 장소영(2012). 교과서 개선 및 교과서 제도 개선 정책 제언. 한국검정교과서.
- 홍후조, 민부자, 정희엽, 이길용(2021). 교과서 발행제 변경에 대비한 발행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 판수 누적 서책 교과서 제도의 확립을 중심으로. 미래엔 연구보고서.
- 정희엽, 민부자, 홍후조(2022). 판수누적(版數累積)교과서 도입의 발행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8(1), 211-233.

필자 소개

- 홍후조: 현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한국교육과정학회 제 25대 학회장을 역임하였다. 기초탄탄형, 기본튼튼형, 진로든든형 교육을 바라며 더 나은 교육과정기준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민부자: 서울송인초등학교 교사이며 고려대 교육과정학 박사 학위 취득하였다. 국가교육과정기준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 정희엽: 초등교사로, 초등영어교육과 교육과정을 전공하였다. 관심분야는 IB 교육과정(PYP), 교육과정기준개발, 글쓰기 교육, 프로젝트 학습 등이다.